

복지시설 소식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어버이날 행사



남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성희)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아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 후원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도시락과 카네이션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못골시장 상인회와 연계해 어르신들에게 맞춤 특식을 제공하고, 화훼농가에서 카네이션을 구입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자 추진되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찾아가는 방역활동과 이용자 안부확인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 ☎647-3655

어려운 이웃에게, ‘좋은이웃들’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좋은이웃들’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에 위생용품, 생필품, 식료품 등을 지원한다. 복지관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 위기에 처한 이웃,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의 연락을 기다린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 ☎647-3655

지역사회 나눔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

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복지관 이용자 240명에게 코로나19 대응 ‘응원키트’를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아쉬움 속에서도 많은 후원이 잇따랐고 복지관은 김 15박스, 쌀국수 8박스, 국수 1만2,000개, 마스크 600개 등의 후원물품과 함께 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 직접 제작한 천연비누 500개로 ‘응원키트’를 만들어 복지관 이용자에게 전달하며 장애인의 날을 기념했다. 복지관은 지난 3월 9일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복지관 이용자와 평화공원 이용 장애인에게 아메리카노와 빵, 과자, 삶은 달걀 등의 간식나눔활동도 가지고 있다.

남구장애인복지관 ☎626-6991

새마을부녀회 식재료 등 전달



새마을운동 남구 부녀회(회장 최영실)는 지난 4월 28일 아동복지시설인 예뻐아홉과 오륙도행복파트 2곳에 식재료, 생필품, 간식 등 각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해당 시설에 전달했다. 코로나 19로 시설 운영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들의 먹거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새마을운동 남구 부녀회에서 주관하고 사단법인 나눔재단 후원으로 이뤄졌다.

■ 온 정 을 나 누 주 세 요

사고로 멈춰버린 인생, 다시 일어서고 싶은 상업 씨

상업(48세) 씨는 고통스러웠던 그 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13년 전, 출근을 위해 고속버스에 몸을 싣고 통영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달렸을 때, 갑자기 ‘헹’ 하는 굉음과 함께 상업 씨가 탄 고속버스는 사고로 인해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상업 씨의 인생도 그날 멈춰버렸습니다.

상업 씨는 어릴 적 어머니와 떨어져 살면서 불우한 시절을 보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한 뒤, 직장에서 우수 영업사원으로 뽑힐 정도로 성실히 살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꿈도 꾸었습니다. 그렇게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던 상업 씨의 인생은 한순간의 교통사고로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상을 입은 상업 씨는 다행히 버스 공제조합 지원으로 1년 동안 머리, 목, 치아 골절 등은 치료를 받아 몸은 점점 회복해 갔지만, 자동차가 지나가는 모습만 보아도 차가 자신을 덮치는 듯한 공포를 느끼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우울증과 정신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닌 교통사고였지만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것 같았고, 그 이후로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상업 씨는 본인을 탓하고, 세상에 대한 불만과 원망으로 부정적이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본인에게 세상 모든 불행이 다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은 상업 씨로 하여금 희망없는 삶을 포기하도록 해 세 번의 자살시도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막다른 절벽에서 혼자 힘들어 할 때마다 그의 손을 잡아준 사람은 사



고 후 찾아와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몸과 마음이 망가진 상업 씨를 걱정하며 아픈 얼굴로 눈물을 흘렸고, 그럴 때마다 상업 씨는 돌아와 준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보다는 어린시절 자신의 길을 떠난 것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며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손수 음식을 만들어 상업 씨를 챙기고, 어린자식처럼 마음을 보듬어 주며 상업 씨가 고통에서 벗어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업 씨는 우울증과 정신이상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상태는 쉽게 좋아지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쳐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불우했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며 평범한 행복을 꿈꾸던 젊은이가 본인의 잘못이 아닌 한 순간의 교통사고로 고통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업 씨가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상업 씨의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도움은 상업 씨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상업 씨가 힘든 고비를 이겨내고 다시 평범한 행복을 꿈을 꿀 수 있도록 작은 희망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성금 감사합니다

2020년 5월호에 게재된 “오갈곳 없는 아픈 속히 씨를 도와주세요” 사연에 대하여 사단법인 나눔재단 20만원, 김샘봉사단 20만원, ○○온정님 11만원, ○○○온정님 5만원, ○○○온정님 10만원, ○○○온정님 2만원, ○○○온정님 2만5천원, ○○○온정님 1만원, ○○○온정님 3만원, ○○○온정님 5만원, ○○○온정님 3만원, ○○○온정님 5만원, 익명으로 도움을 주신 온정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온정은 속히 씨의 병원비와 몇 달간 임시거처의 숙박비,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는데 소중히 쓰여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온정이 누락되어 정정합니다.
-2월 ‘아이들 위해 희망 잃지 않는 미정 씨’, 3월 “승합차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아요”의 진현 씨 사연에 사단법인 나눔재단에서 각각 20만원 온정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주실 분 연락바랍니다

☎ 607-4862

(주인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부산은행 315-01-000297-0
(예금주 :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입금자명 뒤에 ‘온정’을 붙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예시 -홍길동온정)

이웃돕기 소식

내가 받은 혜택, 더 큰 나눔으로

지난 5월 13일 남구에 거주하는 개인 기부자는 구청을 방문하여 텐탈마스크 300개를 이웃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했다. 기부자는 “남구재난긴급생활지원금, 남구에서 지원해준 마스크, 국가 지원 아동돌봄쿠폰, 국가 재난지원금 등 남구와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 감사하다. 어렵게 구한 텐탈마스크지만 나도 받은 만큼 이웃들과 나누고 싶다”고 했다. 기부된 텐탈마스크는 아동거주시설 6곳의 아동에게 전달되었다.

남구재난긴급생활지원금 익명 기부

지난 5월 11일 익명의 기부자가 남구청 장실 방문해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더 어려운 가정에 양보한다는 손편지와 기부금을 놓고 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기부자의 편지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줄 압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 녹록치 않은 환경에서 자라 가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알 듯 합니다. 제 가족에게 지원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더 어려운 한부모

가정에 양보하고 싶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나눔재단 홀로 어르신 위문

비영리 사단법인 나눔재단(이사장 주재식)에서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홀로 사는 어르신 100가구를 선정하여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외로워 마세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나눔재단 봉사자 11명과 U-Turn 봉사단 10명 및 남구 보건소 방문 간호사분들이 어르신들 직접 찾아뵙고 아들, 딸을 대신하여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며, 호두과자와 음료수, 짜장 라볶이, 옷 등으로 구성된 선물 꾸러미(1인 2만원 상당)를 전달하였다.

내호냉면 냉면 130인분 제공

우암동 소재 내호냉면(대표 유재우 대표)은 지난 5월 18일 로나19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냉면 130인분을 제공했다. 유재우 대표는 “코로나19 방역과 선별진료소 업무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함께 하자는 나눔의 마음으로 준비하였으니, 조금 더 힘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수 만든 면마스크 기부한 중학생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 약 3달 전부터 면 마스크를 만들어 왔습니다.”

부산 남구 석포여중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초등학교 때 배운 바느질을 이용해 석달간 만든 면 마스크 53장을 대원1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손편지에는 “이런 간단한 바느질로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우리동네방역단 대활약

남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황영식) 우리동네 방역단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매주 1회 꾸준히 실시해오고 있다. 센터 위탁법인의 이사, 운영위원, 직원들이 솔선수범해 방역단을 결성하였고, 봉사자들까지 매회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센터를 출발점으로 문현로타리 일대 지하철, 버스정류장, 체육시설, 공원, 은행,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 및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을 하고 있다. 방역 활동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봉사 참여 희망은 자원봉사포털 ☎1365로 신청하면 된다.

■ 사 진 으 로 보 는 동 네 소 식



용호4동 장학회장 이취임식 및 제19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해 7명에게 총 3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용호4동 장학회장 이취임식 및 제19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해 7명에게 총 3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용호4동 장학회장 이취임식 및 제19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해 7명에게 총 3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용호4동 장학회장 이취임식 및 제19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해 7명에게 총 3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용호4동 장학회장 이취임식 및 제19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해 7명에게 총 3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용호4동 장학회장 이취임식 및 제19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해 7명에게 총 3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남구체육회 무료교실 안내

교실	요일	시간	정원	장소	운영기간
그라운드골프 무료교실	월~금	09:00 ~ 11:00	30명	백운포체육공원	6. 1. ~ 12. 31.

※ 문의 : 남구체육회 ☎644-7330, 612-7330, 622-7330

축탁의 : 준의원 / 협약병원 : 성모병원

해피실버타운

노인요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입소대상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분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1~4(시설)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의료 서비스

- 물리(작업)치료
- 수시외래진료
- 집중간호
- 건강관리(월2회, 축탁의)
- 건강검진(년1회)
- 차별화 복용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 치매예방프로그램 (실버체조, 인지, 미술활동)
- 여가프로그램 (웃음치료, 민요활동, 색소폰, 통기타, 생선전지, 절기행사, 원예활동, 축족활동 등)
- 지역사회행사

착한 사람, 착한 마음, 착한 서비스로 가족의 자부심을 높여드리겠습니다.

☎621-5003~5004 부산시 남구 동명로 101번길 37-7 (용호1동 주민자치센터 뒤쪽)

부산시 국비지원 100% 무료교육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공동주택관리(아파트회계)자격증

★ 부산시민 실업자(구직자) 누구나 가능 ★
(실업자, 주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준비 희망자 가능)

◆ 매월 수당 25만원 지급, 교재무료, 취업지원(취업연계) ◆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내용(자격증대비)
전산경리회계실무 (전산세무회계 및 아파트회계)	7. 1. ~ 12. 4. (선착순 상담 접수 중)	기초회계입문, 경리실무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공동주택관리(아파트회계)

더 많은 일정 및 자세한 교육안내 www.yeowon.or.kr

여원회계전산직업전문학교

교육상담(연제동지) ☎462-6727 부산진역앞(부산진역 7번출구, 루나도르 3/4F)

소파 맞춤 100% 국내 생산

침대 29만원

식탁 19만원

소파 38만원

장농 58만원

책상 10만원

2층 사무가구

T.628-1806

名品가구 대원 못골버스 정류소 앞